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⑥

주제 : 경허 · 만공 선사 가르침

욕심버리고 분별 놓으면 곧 부처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세여청산하자시(世與靑山何者是) 춘광무저불개화(春光無處不開花) 방인악문성우사(傍人若問擢牛車) 석녀심중경의가(石女心中劫外歌)로다.

화창한 봄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날씨가 풀리듯 마음의 번민과 고민, 짜증, 슬프고 괴로운 일 모두 법당에 쏟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나는 삶, 자유스러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문을 하기 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 오를 것은 선원장 초청 법회가 아니라 조계사 초하루 법회의 법사로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국에 계신 선원장 스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읊은 계승은 경허 스님이 읊은 시로, '세상과 다투어 청산이 어느 것이 옳은가? 불빛 있으니 꽃피지 않는 곳이 없어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경허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들게질 마음 밖의 노래라 하리라'는 뜻입니다.

'들게질 밖의 노래' 이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한



윤 2월 초하루인 3월 21일, 불기년이 원연한 조계사 대웅전과 마당에는 3천 2백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 법문을 경청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한겨울 날씨가 풀리듯 마음의 번민과 고민, 짜증을 모두 풀어놓고 가라"고 당부했다.

다면 이 법회와 더불어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들는 참뜻을 알게 됩니다.

법문이 쇠해서 어려운 시절 경허 · 만공 선사께서 혜성처럼 나타나 근엄선림(謹嚴禪林)을 중흥케

하고 불법을 크게 떨쳤으니 이분들이 석가세존과 다르지 않고 가섭존자와 다르지 않고, 탐마대사와 혜가대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자의 굴 속에도 다른 짐승이 살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경허 · 만공 스님이야말로 무소유의 가르침을 선양하신 분들입니다. 격렬한 조사선 가풍과 표리일체의 가풍을 선양하고 결집 없는 무애의 삶으로 일관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선원장 초청법회 또한 제2의 경허와 만공을 길러내는 선불장이라 할 것입니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법문을 들 때는 얼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하라"하였으니 이 말은 바로 눈으로 다른 경계에 대해 관여치 말고 잘 생겼다는니 말을 잘 한다느니 옳으니, 그러나 법문이 어려우니 쉬우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조각 밝음의 진실한 신심으로써 법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이전에 부처 참뜻 알아야

원래 불법(佛法)은 입을 열면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움직여도 곧 어긋나는 것이어서 개구족작(開口即錯), 동념즉괴(動念即乖) 하였으니 종일 실행지라도 근본에 있어서는 모두 다 마군의 업인 것입니다. 분별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 이전에 부처님의 참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하시고 나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길 위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돌아가는 그날까지 설법을 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

학사 만화 스님을 찾아가라 이르셨습니다. 경허 스님은 그곳에서 경전을 탐독해 불경을 남에게 가르치는 강백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강의를 하던 중 경허 스님은 문득 환속한 은사 계허 스님이 밟고 싶어 찾아가던 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천안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스님은 인생무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생사에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고 다시 동학사에 와서 모든 대중에게 "그 동안 내가 설한 소리는 모두 허튼소리다. 대중들은 모두 자신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찾아가라"고 말한 뒤 문을 닫고 앉아 정진했습니다.

남의 지식 저울질 말라

'여사미래(理事未來) 마사도래(馬事到來)', 즉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다퉈왔다는 공안을 참구하며 밥과 물을 먹지 않고 심자가 풀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뾰족한 송곳을 턱 밑에 두고 깜빡 잠이 들면 거기에 찔려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하던 어느 날 사마가 올라와 '스님 마을에 내려가니 어느 거사가 '고삐 달 구멍이 없는 소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하는 그 소리를 듣고 확연히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도소를 읊으니, '사구무인(四顧無人)이니 의발수전(依鉢誰傳)이리오', 사발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네.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리오. 이 의미가 누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다가갈 수 있어야 진실한 신심과 원력, 자기 삶에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발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허 스님은 다시 결망을 지고 주장자를 찾고 서

경허 스님, '악~' 소리 하나로 가르침 전해 만공 스님, 주저함 없이 日 총독 크게 꾸짖어

양이가 쥐를 잡듯 일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허공장경>에도 "명상(名相)도 마입(魔業)이요, 문자도 마입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이를지라도 마입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신심과 원력으로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듣고 내가 가진 마음을 뒤집어 생사의 문제를 풀고 아무 걸림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허 스님은 일찍이 아버님을 잃고 형은 입산하여 아홉 살에 어머니를 따라 절계사에 들어가 계허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한 유학자로부터 유학을 배워 통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은사인 계허 스님이 환속하게 되자 경허 스님에게 계몽사 등

산 천장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형님이신 태허 스님이 주지로 계셨고 어머니가 공양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직접 탁발을 나갔습니다. 스님이 어느 집에서 묵탁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경허 스님에게 "내가 시주를 하면 그 대가로 나에게 어떤 공덕이 돌아옵니까?"하고 묻자 스님은 "대가를 바라고 시주한 공덕은 없습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대가가 없다면 누가 시주를 하겠습니까, 썩 물러가십시오"라고 하자 경허 스님은 "시주를 못 받을망정 어찌 거짓 말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돌아서 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무렵 이 진사라는 선비가 짙 한 가마니를 일꾼에게 짊어지게 하고 찾아왔습니다.

법적 현장에서 생명나눔실천회 홍보대사 이은경 씨(前 국가대표 양궁선수)

3월 21일 열린 선원장 초청 법회에는 최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 국가대표 양궁선수 이은경(33)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씨가 법장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국가대표 시절 태릉선수촌 내 '한마음불자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면서부터.

이후 힘들 때 마다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는 이 씨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한다.

"스포츠 중에서도 양궁은 정신적인 면에 크게 좌우됩니다. 활 쏘는 동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마음을 다스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참선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양궁도 생활도 마음 다스려야 기록 나오고 행복



법장 스님이 주시하던 수석사를 찾아가 자주 가르침을 청했지만 많은 대중들과 함께 법문을 듣기는 처음이라는 이 씨는 "오늘 스님 말씀 중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음으로 보시기를 하라는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KBS 양궁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려대와 안성 한경대, 청주 교원대에 강의하는 등 선수시절 못지않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씨는 생명나눔실천회 헌혈부문 홍보대사 역할도 자처했다.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생명나눔실천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만큼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6기 참나찾기 선심리치료 명상호흡지도사 모집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이카데미 개설의 목적은? 현대인은 물질과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참나를 찾고 온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도덕 불감증과 각종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정리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정을 높일 수 있는 참선과 명상호흡, 정신분석, 선 심리학, 자연대체 의학을 활용한 정신심리치유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최상의 정신심리 치유의 경을 열리는 불교적 노력을 담아서 '선 심리치료명상호흡이카데미'를 개설한다.

Table with 4 columns: 과정, 요일, 시간, 기간. Details about the course schedule.

- ◆특 전: 1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기인 자격, 2 선 심리치료상담 전회원 '마음의 전화' 개설서 자료 제공, 3 참나 찾기 필관제 큰 모임(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상담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문의 및 수강신청 2004년 3월 20일 ~ 4월 1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요망) TEL : 02)738-1275 (심리치료), 02)312-8248 / 9(F) H.P : 016-301-4080 *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선 심리치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 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사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명상호흡이카데미

특별강좌 전기기공요법

너무나 쉬운 이 시대 최고의 대체의학. 電通으로 경력을 통통시켜 만병을 지우자는 中國 특유의요법 강.

적용증 구안와사, 반신불수,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오십견, 협심증, 위장병, 두통,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당뇨, 중풍, 간질환.

일시 2004년 3월 28일(일) ▶ 12시 - 맛보기 무료강의 ▶ 1시 - 본 강의(약 3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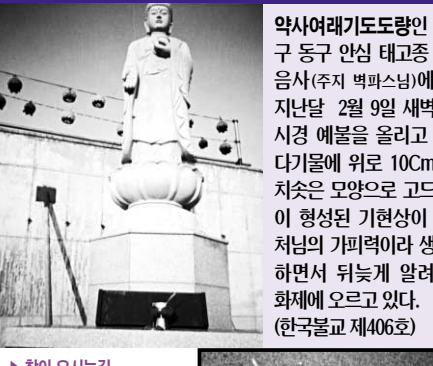
장소 상봉역 7호선 6번출구 세서울 극장 옆 무량선원

전화 02)491-7358 017-750-9900

대상 의료계 종사자, 피부미용 맛사지사, 스님, 일반인, 목회자

매주 일요일 강의 예정 * 철저한 살기쉬우 안벽마스터 1실 완성

노전에 모셔진 약사여래불상임 다기에 거꾸로 치솟아 멋진 고드름



약사여래기도도량인 대구 동구 안심 태고종 관음사(주지 벽파스님)에서 지난날 2월 9일 새벽 3시경 예불을 올리고 난 다기물에 위로 10cm쯤 치솟은 모양으로 고드름이 형성된 기현상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라 생각하면서 뒤늦게 알려져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한국불교 제406호)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29-2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관음사 주지 벽파 합창 문의 053)963-4028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화됩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 초급 · 중급 · 상급 · 고급 각 3개월 과정
- 명상 · 사법과정 각 1년
- 지도 : 보덕현호선사
- 수강료 : 3만원(월1만원)
- 개 강 : 4월 7일(수) 오후 4시
- 접 수 : 마포문화원 문화학교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0-2
- 전 화 : 02)312-1100
- 위 치 : 아현고가도로 마포쪽 아현중학 앞 지하보도 내

법안명상기공회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3월21일-조계사 초하루 특별법회)



“정말 부처가 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전부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내고 시비하고 옳다. 그러다 분별하는 생각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법장 스님.

아침에 찾아갔던 집 주인이 바로 서산 지역에서 유명한 원님이자 유학자였던 것입니다. 이 진사는 경허 스님의 범상치 않은 품격과 언동을 보고 그 학문의 깊이와 덕의 경중을 알아보고 싶어 찾아 온 것입니다. 이에 스님은 “그래 그렇다면 저울과 잣대는 가지고 왔느냐”고 묻자 이 진사가 “그것은 저울과 잣대로 재보지 않고도 머리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경허 스님이 ‘악(曷)하며 고향을 백력같이 치고’ ‘방금 내가 지른 소리는 몇 근이나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진사는 그 자리에서 깊이 사죄하고 단 하루 만에 경허 스님과 십년지기가 되었습니다.

고민 있으면 마음은 무간지옥

이것이아말로 글과 말이 아닌 선의 가풍입니다. 여러분은 경허 스님이 이 진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소리 지른 것을 참구해야 합니다. 그 일갈(一喝)에 우주의 만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사가 다 그 속에 있고 극락과 지옥, 옳고 그르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일체 만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허 스님의 일화는 석가세존이 생사를 초월한 그 일이나 달마가 생사를 초월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장이나 말을 떠나 일체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듯 분별심이 끊어질 때 진실한 불교를 알 수 있고 참선하는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 **법장(法長)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92-2003년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경허-만공-원담 스님으로 이어지는 덕숭가풍의 제자로서 이판과 사판에 두루 탁월없이 전법

서 글과 말로 알려고 하지 말고 사랄이나 분별심을 놓아야 합니다. 남의 지식을 저울과 잣대로 재려는 이런 생각이 끊어질 때 진실한 불교를 알 수 있고 참선하는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공 스님에 관한 일화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 뜻을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다만 진실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중 만공 스님이 일본 인 미나미 총독을 꾸짖은 일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만공 스님께서 마곡사 주지로 계시실 때 미나미 총독이 31본산 주지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미나미 총독이 “한국 불교는 일본에서 온 것이다. 일본 불교와 조선의 불교를 합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라우치 총독의 힘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청정본연(淸淨本然)이거늘 윤희를생산(雲何忽生山何大地). 청정회 본연허거늘 어찌하여 산해대지가 나왔는고”라고 크게 일갈을 내치르셨습니다.

이처럼 말과 글이 아니요, 사무치는 일갈로 유생을 대한 경허 스님이나 칼과 총이 난무하던 일제 치하에서 총독에게 일갈할 수 있었던 만공 스님의 안목이 곧 생사가 없는 이치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것, 시비비비를 가리는 것 모두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생사가 없는 것이요, 저울질 잣대질 하는 마음은 생사윤희를 거듭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처가 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전부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내고 시비

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4년), 동국학원 이사, 총무원 사회·재무부장 등 종단 요직을 거쳤다. 현재 (사)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사장, 대한불교청년회 총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고 옳다. 그러다 분별하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평생 병신 노릇을 하고 살 것이라 단언합니다. (주먹을 쥐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걸 펴지 않으면 병신입니다. 주먹이 펴지지 않으면 병신노릇 밖에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며) 물을 마실 때는 손을 오므려야 합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이 때는 손을 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모두 저에게 주시고, 대신 ‘판쪽’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은 무간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마음자리를 깨닫는 자리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라=여수령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야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3>



“나는 정지해 있노라”

한 때 텔레비전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모 신용카드 회사의 광고를 본적이 있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신용카드 광고였다. 그러나 막상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단계가 되면 고민이다. 휴일이 되면 어느 곳이나 붐비기 때문에 나서기가 무섭다. 목적지까지 거리에서 낭비해야 하는 시간, 도착하고 나면 수 많은 인파에 밀려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지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일만 할 수 없다. 쉬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 지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분주하다. 조금도 쉴 새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외국에 살다가 귀국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생활 방식은 여기 저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당에 가서 주문한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야단이 난다. 음식이 나오면 재빨리 먹어 치운다. 이런 음식 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가 오는 것을 보고는 곧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앙글리말라는 붓대를 쫓아 찾았던 흰가지 다하여 달렸으나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앙글리말라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마음질은 말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람은 뛰지도 않고 걷고 있는데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앙글리말라는 지친 나머지 멈추어 서서 앞사라는 붓다에게 “멈추어라”라고 고향을 질렀다. 붓다는 발길을 멈추지 않은 채 “나는 언제나 정지해 있노라.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앙글리말라는 순간 기이한 느낌이 든다. 자기는 서 있고 저 붓다는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붓다는 설명했다. “앙글리말라여! 내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움직임이 없다. 왜냐하면 여래(如來)에게는 남을 해칠 생각, 미워하는 마음 등이 없기 때문이니까. 그러나 네 마음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죽이려는 생각, 쫓으려는 생각으로,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달리고 있다.” 비록 앙글리말라는 발걸음은 멈추었지만 마음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붓다는 발걸음은 비록 달리고 있지만 마음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쉬고

우리 마음은 여러가지 욕망으로 분주
욕심의 뿌리 뽑아야 참된 평화 찾아와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 푸드의 인기는 현대인이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서구의 어떤 철학자가 느낌을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쁘게 살아 가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에게 국한된 말이 아닌 것임에 틀림없다.

<불설앙골계경>에 전하고 있는 붓다와 앙글리말라의 대화는 휴식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붓다가 사위성에 있을 때의 일이다. 많은 비구들이 사위성에 들어가 결식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각기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나라에는 아주 흉악한 도적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앙글리말라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죽이고는 각각 그 손가락을 하나씩 끊고 묶어 꽃다발을 만들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앙글리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흉악한 도적에 관한 이야기를 비구들로부터 들은 붓다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앙글리말라는 멀리서 붓다가 오는 것을 보고 즉시 허리에 찻던 칼을 빼어 들고, 붓다를 향하여 달려 갔다. 그 때 붓다는 멀리서 앙글리말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이 쉬어야 욕심이 될 수 있다. 마음이 분노와 증오로 타오르고 있을 때 잠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보내기도 한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칼날 앞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큰 바위와 같이 동요함이 없다.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없는 사람을 여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도 마음을 정지시키기란 힘든 일이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다. 여래들이 결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여러가지 욕망으로 분주하다는 것이다. 욕망의 정지아말로 진정한 마음의 휴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휴식은 일상적인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심신을 편안하게 쉬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의하면 심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 한 결코 평화는 없다. 먼 곳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욕망의 뿌리를 뽑아버림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6월 7일
▶일정: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8일 ▶출발일: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람하이웨이 따라 피미르고령(총령)를 넘어 실크로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정: 인천-라호르-타실라-페사워르-스와트-힐라스-길기트-훈자-카슈미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북극 4대 명산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정성지-천하제일 황산-황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황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 만년사 등-성도) 85만원
▶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4월 22일 149만원
▶일정: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 까비에따고다-점심사리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4월 22일
▶일정: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 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거리리아 고대영국-담팔라등굴사원-켄디의 불처사(부처님지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4월 20일, 6월 6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엄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
티벳일주 11일(티벳 리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루만까지) ▶일정: 라사-포탈리공-장체-시기체-르체-사카(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주봉)-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행사소통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영품)

- ▶ 불계 고수전구, 인기전구
- ▶ 용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예(특 월라멘트)로 빛이 열등이 밝고 절연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행사소통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탐들이, 방쟁)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합합니다. (견전지 사용)

DWS2000 LED초 DWS1000 LED초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